

# 목포시, 용해지구 어울림도서관 착공

### 내년 5월 준공 목표 총사업비 129억8천6백만원 투입 지하1층 지상 3층 장난감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 건립...지하에 주거지주차장도 추가설치

목포시가 용해지구에 들어설 문화복합시설인 목포어울림도서관(이하 어울림도서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어울림도서관을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해지구는 목포의 대표적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거주인구가 많아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큰 지역이다.

시는 시민의 문화향유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용해동 997-1번지에 총사업비 129억8천6백만원(시비 71억9천만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울림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용해동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 용역을 마무리한 뒤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2019년 10월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주차장이 추가됐고, 주차장(29면)을 조성할 수 있는 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공사

하 면적이 증가했다. 연면적도 당초 3천㎡에서 4천424㎡로 늘어났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하의 주거지 주차장은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1층은 북카페, 문화교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은 동아리실, 멀티강의실 등과 함께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한다. 3층은 디지털자료실, 학습실 등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장난감도서관이 부모의 장난감 구입 부담을 덜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의 주요서비스는 장난감 대여로서 시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비치하는 한편 세척실을 설치해 청결에 특별히 신경을 받겠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어울림도서관은 목포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목포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문화도시 목포의 면모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무안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각종 규제 의견 수렴해 군민 불편 해소·규제개혁 성과 창출"

무안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1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김희필 부군수 주재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환경오염·위해발생 등 시설 허가)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가 진행되었다.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등 일부업종 및 신고사항 중 환경, 경관 위해시설과 관련하여 업종별·주요시설별 200m에서 500m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제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군민의 정주조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암군, 상반기 영암행복일자리 127명 선발 시행

### 경쟁률 4대1 역대 최고

영암군은 취업취약계층에 생계보조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127명을 선발하여 2021년 상반기 영암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4개월간 실시한다.

영암군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사업비 8억2천만원을 투입해 상반기 참여자를 확대 선정하였다. 지난 1월 중에는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주요 시설물 환경정화 및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각종 전산 보조

사업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46개 업무 분야에 127명을 선발했다.

1차로 선발된 48명은 2월 1일부터, 2차로 선발된 79명은 3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4개월간 참여한다.

한편 이번 2차 모집에서는 79명 선발에 300여명이 몰려 역대 최고 4대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사태로 휴·폐업, 채용 중단 등이 계속돼 청·장년층 취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악의 취업난 속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실에, 영암행복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위기 상황을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영광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공모 선정

### 국비 7천만원 확보... 中 企 인력수급 안정화 기여

영광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과 협업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선정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고용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전남인력개발원과 협력하여 기업의 구인 발굴과 수요맞춤형 지역인재 DB 구축 및 매칭으로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

고,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운영중인 영광고용복지센터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연계, 사후관리 역할 수행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신안군-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관리 위한 복원사업 추진 기반 마련"

신안군은 지난 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신안군-국립생태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복원 및 서식지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자원 공동 활용 및 공동 연구에 관한 사항,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합의한

협력 사항 및 공동 발전 방안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서식지 개선 및 관리, 사후모니터링과 주민교육 등을 연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추진 기반 마련, 신안군민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 멸종위기종 복원 노력과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공 및 생태 연구·교육 분야의 지식 및 기술 교류를 통



신안군-국립생태원 업무협약식

한 기관 간 상생 발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협약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

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국립생태원과 협약의 협약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원종확보, 서식지 연구 및 모니터링과 생태교육을 통한 지역주민 인식제고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